3. 금융상품 별 비교분석

1. 정리

-투자성 자산의 개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

- 초과 손실의 개념: 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성

-DR: 지분 증권의 예탁 후 발행하는 증권

필요성이 잘 이해가 안되네….

왜 예탁을 해야하는가?

삼성전자의 경우 해당 주식은 원화로 매매되는 주식이고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원화로 거래되는 주식을 미국 기관에 예탁을 해서 해당 예탁 증서를 달러 표시로 발행해서 그 증서를 거래해야 원화 표시 주식을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기적금의 표면 이율은 높으나 연수익률이 낮다

왜?? 뭔소리야?? =>대부분의 경우 상품의 수익률이 단리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 정기 적금의 표면 이율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기에 연 수익률이 표면 이율에 비해서 낮은 현상이 나타난다.그렇기에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새로 가입 하는 것이 좋다.

-ELD(Equity Linked Deposit): 주가 연계 예금, 보통 특판 상품으로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99~98 정도의 자산을 무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원금을 보장하고 1~2 정도를 극한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만들어낸다.

-회전식 예금: 자동 예치식 정기 예금, 만기 후 자동으로 재예치를 해준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 조건부 채권

-표지어음: 기업간 거래 발생에서 현금 대신 발행하게 되는 약속 어음을 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받게 되는 경우 은행은 이 어음을 기반으로 은행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시중에 팔게 되는데 이 어음이 표지어음이다.

-CD(양도성 예금증서)

-cofix : 이전에 은행의 기준 금리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했는데 cd 금리의 투명성이 적어서 은행들이 cofix라는 일종의 기준 금리를 만들어서 각종 은행상품의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국민연금 vs 신연금저축(개인연금)

국민연금: 의무가입, 10년 이상 적립

2033년 기준 65세 수령,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신연금저축: 임의 가입, 5년 이상 적립

55세 이후 수령, 납입액 일부 세액공제

-퇴직 연금 분류

확정기여형(DC): 회사가 퇴직금을 넣으면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 귀속되는 형식의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기업이 운용 지시를 해서 운용 손익이 기업에 귀속되고 퇴직 연금액이 확정적인 퇴직연금

-주택연금: 주택 담보 대출->mortgage, 노후에 사망 시 주택을 금융기관이 처분하고 그 동안 대출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받는 제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이자 비과세 상품

가입자격: 2022기준 ->일반, 서민, 농어민 분류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종류

RP 형

Mmf 형 등

-WRAP account: 자산 배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계좌

자산잔고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

-ELS는 만기 수익이 사전에 확정되어 해당 수익이 달성되면 조기 청산이 가능하다(손실이 날 수 있다.)

-ELB는 원금 보장형 ELS이다

이익 참가율: 기초 자산 가격 변동율에 대한 ELS 수익 변동률

-ELW는 옵션과 비슷하지만 실제 주식이 이동하지 않고 차익만 이동한다. 엄청나게 투기성이 강하다.

-ELW 전환비율: ELW 1증권으로 살 수 있는 기초 자산의 수량

(ex: 전환비율 0.2 = ELW 1증권으로 기초자산 0.2개를 살 수 있다.)

-ELW의 내가격과 외가격

내가격: 현재의 주식 수준에서 내재 가치를 갖는 ELW의 가격

외가격: 현재의 주식 수준에서 내재 가치가 없는 ELW의 가격

최근 Active 펀드와 Passive 펀드의 중간 성격으로 enhanced index fund 또는 알파 펀드가 등장했다.

-펀드의 환매: mmf는 당일 환매고 일반적인 경우 4일 정도 걸린다.

Mmf는 실제 현금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해서 바로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을 사서 운용을 하고 환매시 해당 비율만큼 금융 자산을 처분해야 현금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식의 3일 + 1일인 4일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채권형 펀드

주식을 사지 않고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수익률을 실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높다.

Low risk Low return

-혼합형 펀드

Middle risk Middle return

채권 혼합형: 채권의 비중 50% 미만

주식 혼합형: 주식 비중 50% 이상 60% 이내

-주식형 펀드

High risk High return

주식 비중 60% 이상 투자

실제로는 90~95% 정도 주식에 운용함

주식 매수 + 선물 매도로 헤지

-ETF: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인덱스 펀드

일반적인 인데스 펀드와는 다르게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기에 바로 환매 가격이 즉시 결정되는 이점이 있다. ->투자자의 환매 가격 결정 가능

인덱스 펀드: 시장 마감 이후 종가 기준 환매 가격 결정 -> 투자자의 가격결정 불가능

-부동산 펀드

일종의 특판 상품

판매 기간 중 소진되면 판매를 중단한다.

실물을 운용하는 인력을 대체운용인력이라 한다.

임대형: 부동산 매입 후 임대 수익을 배당(미국의 부동산 펀드의 일반적 형태)

* 공실률, 임대료 위험, 유동성 위험

PF형: 부동산 업자에 대한 대출로 수익을 얻는 형태(우리나라 부동산 펀드의 일반적 형태)

* 사업 인허가에 위험이 매우 크다, 건설사(시공사) 부도 위험

경매, 공매형

-사모펀드vs공모펀드

공모펀드: 자본이득 추구(트레이딩)

투자자 != 운용자

사모펀드: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매각 차익 추구

사모펀드는 사원수(=투자자) 50인 미만(ppt 잘못됨)

공시의무 면제

투자자이면서 운용자인 경우가 많다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움

-메자닌 펀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수준인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헤지펀드

일종의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특정 수익률 도달 시 거액의 자금이 한번에 해외에 유출되는 영향이 있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규제 모습을 보인다.

-판매 보수(fee) vs 판매 수수료(commition)

판매 보수: 펀드 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연 1~2%수준)

판매 수수료: 일회성 비용

-분산투자: 상품의 분산투자, 시기의 분산투자

-펀드 구입의 유의사항:

\*목표 수익을 정한다(일반적으로 8~15% 수준)

달성 이후 mmf 펀드로 전환 전략(주식 파생상품 투자 x)

\*연평균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한다(약 5.5~6%) + 무위험 수익률 = 요구수익률

\*사후 관리 측면에서 펀드규모의 지속적인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High risk high return은 평균적인 말이기 때문에 위험은 높지만 수익이 낮을 수 있다.

\*중국펀드의 변동성에 주의하고(why? 중국 개인투자 비중 70%) 국가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익 관리가 중요하다.->동적 자산배분(역투자전략필요)

역투자 전략: 가격이 오른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전략

\*펀드 비용 발생으로 인덱스 수익률의 어려움을 인식한다.

\*잘못된 상식을 주의하라(장기투자,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 이것들이 만능은 아니다.)

-일반적인 증권 발행 과정

금감원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 – 심사수리 – 효력발생기간(15일)-효력 발생: 투자자의 청약 수락

청약 수락: 투자자 모집

-CL보험

치명적인 질병이사 사고 발생 시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보험

-모자형펀드 = 모펀드 + 자펀드-> 투자자들은 자펀드에 가입

자펀드 운용은 100% 모펀드 투자 -> 모펀드 대형화, 부동산운용 효율적

소비자는 모펀드 가입 불가, 자펀드만 가입 가능

-재간접펀드: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

이 경우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는 펀드에 별도로 투자가 가능하기에 모자형 펀드와 다르다.

-부동산 펀드의 PF펀드의 경우 요구수익률이 12%에 이른다. (위험프리미엄: 약 10% 가량)

-일반과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1.4%)

-일반적 비과세는 금융 소득에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완전 비과세를 의미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득세만 제외되고 농특세 1.4%만 내는 경우도 비과세로 취급한다.

-현재는 세금 우대라는 것은 없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금융상품(ex:국민연금)

->소득 산정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부분

\*과표 (= 소득 – 공제) 기준 세금 납부를 해야하지만 매월 납부한 세금이 실제 공제를 했더니 더 많이 납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소득 3800까지(약 전체 근로자 대비 42~43%)는 면세된다.

\*세액공제: 일부 금융상품

과표에서 제외하는 부분

\*연말정산: 실제 정산은 연초에 발생한다.

-협동조합의 예금 보호는 자율적으로 5000만원을 예치 보호 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의무 가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질적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PPT를 참고하자

-FATCA는 미국에서 시행되어 우리나라에 2014.7 이후 적용되고 있다.

-저축 목적별 자금 설계

\*주택 자금 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실제 은행의 자금은 예금 고정 금리로 조달하기 때문에

ALM이라는 자산부채 관리를 한다, 감독기관에서는 변동 금리의 고정 금리 전환을 권유한다.

\*보험

자기 소득의 5%이하, 저축성 보험(EX: 연금보험) 포함 시 10%미만 유지 중요!!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만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건전도 지표(구글 ‘파인’(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참고)

\*공통사항

~경영공시 내용

~금융당국 경영평가 내용

~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 등

~은행 결산은 12월 말 결산, 증권회사는 3월 결산

\*은행, 종합금융회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우리나라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12%이상 유지)

~부실여신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

%은행의 여신에 대해서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뉘는데 고정 이하 여신은 실질적 부실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NIM(NET INTEREST MARGIN,순이자소득) : 예대마진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마지노선 150%->이것보다 떨어지면 ELW, ETL 등 발행 불가 등 제재가 있다.)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CB): 보통 150을 넘겨야 하며 100이 마지노선이다.

\*상호저축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 여신비율(=고정이하 여신 비율)

%상호저축은행의 부도 위험이 은행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한다.

-금융 상품의 투자 원칙

경기순환주기를 고려해서 투자 기간을 정해야 한다!!!!

2. 궁금증 정리사항

1. 개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도 일종의 금융 상품의 범주로 보아야 하는가?

(ex: 과거 은행에서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개인 채권을 대부업체에 판매한 행위 등)

->해당 부분에서 개인 채무는 금융 자산이 아니라 자산의 매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즉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자산의 매각이다. 어떤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1. ABS(Asset Backed Security):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일반적인 담보 대출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금 흐름에 대한 담보 대출과 뭔 차이가 있는 것인가??

->ABS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현금화(유동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담보 대출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주택 담보 대출 과정의 예시를 들자

개인이 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진행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은행은 개인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고 이것의 현금화는 개인의 대출 청산 시점이다.

해당 시점 이전에 은행이 해당 채권을 현금화(유동화) 하기 위해서

해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V)에 이전하고

이 회사에서 유동화 증권(ABS, 이 경우 기초 자산이 대출이기에 MBS가 된다.)을 발행한다.

유동화 회사는 이것을 은행에 넘기고

은행은 이것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유동성(현금)을 공급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동화 전문 회사는 수수료를 얻게 되고

은행은 대출 청산 이전에 자산의 현금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투자자는 대출 청산 이후 수익을 얻게 된다.

1.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2. HNWI(High Net Worth Individuals) 시장: 고액 자산가 자산 관리 시장
3. 증권회사 취급 상품

ELS: 주가 연계 증권

ELB: 원금 보장형 ELS

DLS: 파생 결합 증권(원자재나 통화, 채권 등 연계)

DLB: 원금 보장형 DLS

CMA 계좌: 자산관리 계좌로 자동적으로 투자를 해준다.

ETF: 상장지수 펀드(기초자산: 주식)

ETN: 상장지수 증권(기초자산: 채권)

1. ELW와 옵션의 차이점은 ELW가 일종의 증권인 점, 거래 당사자가 증권회사인 점, 거래 가격 단위가 상대적으로 옵션보다 적다는 것 밖에 없는 것인가?? 설명만 들으면 옵션과 달리 차익만 거래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

->상품 성격만 보면 차익만 이동하는 옵션 상품이다.

이때, 만기 결제에 대한 이행 보증에서

옵션은 거래 시 보증금을 설정해서 거래 자체에 이행 보증이 설정되어 있고

ELW는 발행 증권사에서 이행 보증을 한다.

또 ELW의 최초 매도는 증권사만 가능하고 투자자는 ELW의 최초 매수 후 매도가 가능하지만 이때, 매수 대상은 증권사가 된다. 증권사는 일종의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1. 뮤추얼 펀드: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펀드 투자 지분 만큼 펀드 운영의 권리를 얻고 주식 소유자는 언제든지 순자산 가격에 회사에 지분을 판매할 수 있는 펀드
2. 은행상품

당좌예금: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금전 지불의 사무를 은행에 맡기기 위해 만드는 예금으로

예금의 환불은 수표로 이뤄진다.

가계당좌: 가계(개인)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MMDA: MMF의 예금버전

재형저축: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1. 아무리 봐도 ISA랑 WRAP account, CMA의 세제 관련 차이 말고 차이점을 모르겠다.

ISA는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 가능하고 CMA는 한가지 종류의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인가???

->고객 자산 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나머지 둘은 세제 혜택이 없다.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수료가 없으며 가입 기간이 약정되지 않는다.

WRAP account는 일종의 약정된 fee가 있고 계약기간이 약정되어 있다.